대 학 주 보
〈1115호〉
1997년 3월 31일 월요일

□변질된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 의미 사라진 '영화시장'

수상작품, 황금알 낳는 거위로 인식

미국영화의 맹목적 추종 금물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 27일 열렸다. 이번 해에도 여지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애쓴 모습이 엿보였다. '잉글리쉬 페이션트'의 9개부문 수상으로 마감된 69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의미와 우리 영화계 현실을 짚어본다. 〈편집자〉

장 석 용
〈영화평론가·
전 대종상 심사위원〉

해마다 3월말경 아카데미상 식장 주변은 화려한 의상과 고급 승용차를 탄 배우들의 물결로 썩 볼만한 구경거리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의 힘의 논리에 영합해 온 아카데미상 심사위원들은 그동안의 '落點'(낙점)을 추스리는 뜻 '잉글리쉬 페이션트'를 9개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작품, 감독, 여우조연, 촬영, 미술, 의상디자인, 편집, 음향, 음악상을 거머쥔 것이다.

사실 아카데미상 수상작은 전세계 영화관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온지 오래이다. 그동안 오락 일변도로 치달아 온 미국영화사들의 얄팍한 상혼에 펀치를 먹이는 이번 결과 또한 반복되어 온 행태중의 하나로 비춰진다.

미국영화의 현주소

자국영화의 저급한 수준을 위장하기 위해 아트 필름 지향의 영화에 추파를 던진 이 시상식은 이미 국제영화제가 아니다. 그저 시상식일 뿐이다.

미국 영화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이 시상식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 시상식이 얼마나 대중적인지를 알 수 있다.

'샤인', '제리 맥과이어', '에마', '에비타', '고스트 앤 다크니스', '인디펜더스 데이', '파고', '슬링 블레이드'와 같은 수상작을 살펴보자. 정말 작품다운 작품이 빈약함을 금새 알 수 있다.

자국영화의 선전장이 된 이 시상식을 비싼 외화를 낭비해가며 생중계를 해 온 방송사들의 작태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상업성에 지나치게 노출된 시상식의 전모를 감추기 위해 유럽 출신의 감독들을 부각시킴으로서 형식적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는 심사위원단과 집행부의 추태에 우리는 덩달아 놀아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최우수외국어 영화상 부문인데 24일 69회 시상식에서 체코의 '콜리야'가 시상식의 질적인 초라함을 보충해주고 있다.

시상식의 순위는 통상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으로 등위를 매길 수 있다. 아카데미상은 1929년에 제정되었고, 초기에는 부문상도 소수였다. 그러나 영화가 산업으로 발전되고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인식된 뒤부터 시상식도 대극장에서 화려하게 치뤄지고 있다.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0개 부문에서 수상을 한 후 아카데미 시상식은 점차 대중적으로 변하였다.

2차대전중에는 '카사블랑카'와 같은 전쟁물이 수상했고, 종전 직후에는 가정에 복귀한 제대 군인들의 가정의 삶을 다룬 '나의 생애 최고의 해' 등이 수상을 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탄 영화들로 베트남 전쟁을 다룬 '디어헌터' '포레스트 검프'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다.

인종차별과 연결

시상식에서 수상되는 작품들은 미국영화의 자본력,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 미국의 현실을 다룬 영화, 미국인의 자선과 봉사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근래에는 SF영화와 컴퓨터 그래픽의 우수함을 알리는 작품의 선전을 목적으로 작위적 시상을 베푸는 문화제국주의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영화의 보수성은 인종차별과 직결되고 있어 유색인종의 연기자들이 수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유태인 스필버그의 '칼라퍼플'은 심사위원들의 철저한 외면속에 부문상 하나 건지지 못한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미국영화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인의 보편적인 삶을 그린 영화이거나 미국영화의 노선을 정확히 지키는 영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금물이다.

영화는 모름지기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어느 나라나 자국영화의 선전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시상식도 품격을 지녀야 한다.

그 잡음 많은 대종상이 올 10월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궁금하다.

청룡상, 백상예술상, 영화평론가상, 춘사영화제등이 우리 고유의 전통으로 품위도 지키고 영화 제작 방향을 리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환타스틱영화제 등도 외국의 시상식과 같은 모방으로 일관한다면 그 결과를 읽을 수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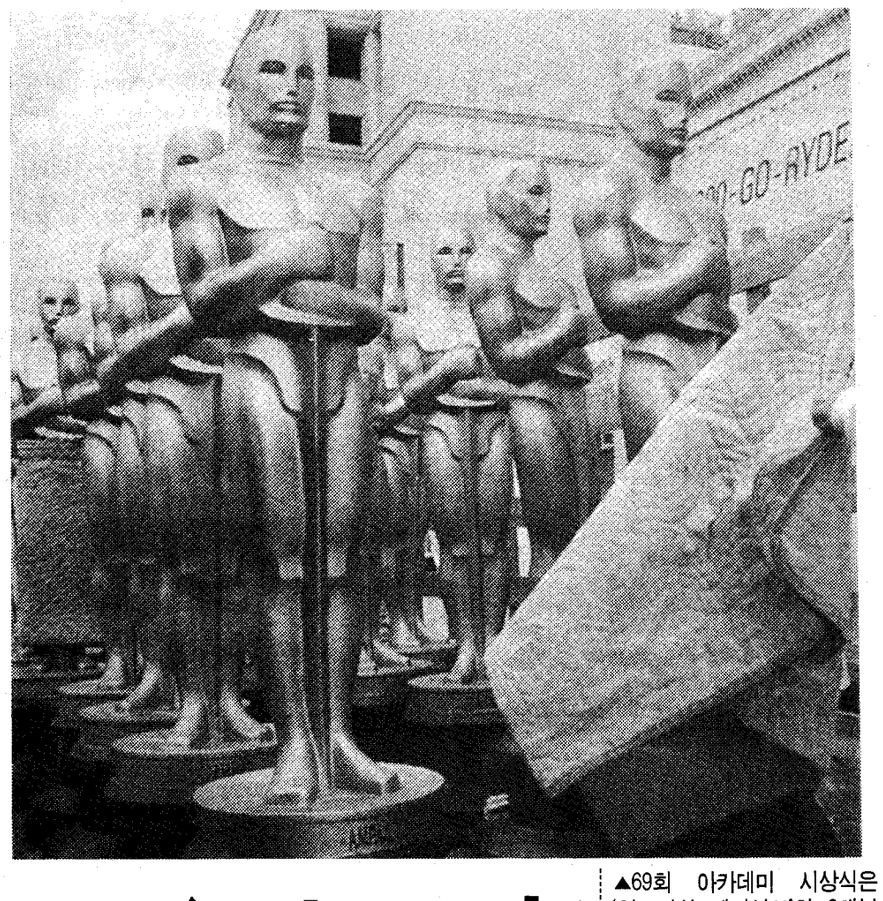
시상식은 많은데 시상할 작품들이 빈곤하다면 시상식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95년 필자가 이태리 황금금배상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북부 산간도시 세인트 벤센트에서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관객들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흥겨운 잔치마당이 벌어지고 있었다.

순수와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상식도 이뤄져야 할 것이고 미국영화 일변도 시상식이 시상식의 전부인 것으로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

미국영화들이 유럽영화 정신을 갉아먹는 이 때 깐느·베를린·베니스 영화제들은 아직까지 전통과 품위를 그나마 지켜왔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영화인들의 잔치이고 우리가 흥분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69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잉글리쉬 페이션트'의 9개부문 수상으로 마감되었다. 사진은 시상식에 쓰일 조형물들

▲대종상 영화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영화제는 제작방향을 인도하는 성격을 갖춰야 한다.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⑤전통 기와의 조화미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옛날부터 지붕은 성주신이 사는 높은 곳, 신성한 곳으로 천지에 불의를 고발하고 바른 뜻을 알리는 곳이다. 이러한 전통적 방식과 서구적 방식을 혼합하여 건축한 우리학교 본관 석조전의 14개의 원주 위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무궁화를 조각하였다. 그리고 옥상의 삼각형 지붕의 벽면에는 여덟 사람이 문화세계를 묘사하는 조각이 있다. 중앙에 있는 상은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여신'이며 왼쪽은 우주의 지식을 연구하는 모습, 오른쪽은 과학을 탐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정신문화를 향상시키고 최고도의 과학문명의 발달을 이룩하여 평화롭게 사는 인류의 문화세계를 상징한 것이다.

◀도깨비 문양 형태의 기와

우리학교 박물관의 와당실에는 직선과 각을 사용하여 대륙적 기상을 드러낸 고구려 기와 85점, 부드러운 곡선과 풍성한 입체감을 가진 백제 기와 1백4점,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이 나타나는 통일신라 기와 4백48점, 고려기와 14점, 조선시대 와당 7점이 전시되어 있다.

기와의 무늬는 연꽃잎 무늬가 주류를 이루며 도깨비 문양도 나타난다. 연화문은 불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처 또는 그 대좌의 상징으로 쓰인다. 이는 오랜 수행 끝에 번뇌의 바다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으로 빛의 상징이자 생명의 근원인 연꽃 하나하나에 부처가 탄생한다는 무한 창조관념을 상징한다. 또 지붕 용마루의양끝에 무서운 도깨비기와를 두는 것은 벽사축귀를 위하는 주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제1회 대학영화축제

나래 펼치는 아마추어들의 향연

제1회 대학영화축제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전국 54개 영화연합동아리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상업적 영화들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영화들이었다.

대학영화패연합 작품전, 대학영화회고전, 출품전, 신작전, 영화학과 작품전들이 25일 개막식부터 29일 폐막식까지 고루 상영되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상영됐던 이번 대학영화축제는 영화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관람하느라 기념관이 순식간에 꽉 메워졌다.

기념관 밖에는 홍보물과 기념뺏지를 파는 학생들 그리고 안에서는 필름을 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다. 영화상영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밖에서 서로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기념관안이 조금은 시끄러웠다.

대학영화에 관심있어 이번 영화제를 찾은 곽규정양(이화여자대학교 전산2)은 "출품된 작품들이 제각기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것 같다. 그래서 각 영화에 대해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역시 대학영화라 자본이 불충분해 표현상의 한계가 많이 느껴졌다"라며 대학영화의 한계성에 대해 안타깝게 이야기했다.

지방학생들도 이번 영화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강원도에서 올라온 남일성(한림대 심리학·4)군은 영화제에 대한 느낌에 대해 "자기학교의 작품을 위해 학생들이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그러나 영화들이 너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이 노출되었다. 기성세대 제작진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재정문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에서 출품한 기계문명에 대한 공포와 위축된 삶을 주제로 담은 영화 'Tech No Man'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옷을 벗고 화초에 물을 주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Tech No Man'의 주인공이자 '그림자놀이' 회장인 김민성(정경대 경영·2)군은 "시나리오대로 충실히 영화를 찍었지만 역시 영화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기자재의 문제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학영화축제. 사진은 영화제의 안내문

국내영화의 표절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속에서 비록 열악하지만 창의로운 대학영화가 선 보일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영화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대학영화패연합(대영연)은 이러한 행사들이 단발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단체의 도움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 이번 영화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김동혁 기자〉